

##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

홍고은, 김동희\*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

###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Go-Eun Hong, Dong-Hee Kim\*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처해진 상황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서 종류가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학생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섭식장애는 Garner(1990)의 Eating Disorder Inventory-2(EDI -2)를 이임순(1998)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의 측정은 Frost 등(1990)의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 MPS)를 현진원이 번역한 것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218명의 무용전공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5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부를 제외한 최종 218부를 가지고 SPSS 21.0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학력과 오래된 경력을 가진 무용학생일수록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차원적 완벽주의(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의 기준, 부모의 기대)는 무용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섭식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학력과 오래된 경력을 가진 무용학생들은 무용수행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왜곡된 신체상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올바른 체중조절 방안과 섭식장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have different types of stress because of thei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go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dance. Questionnaires for eating disorder (Eating Disorder Inventory-2(EDI-2) made by Garner (1990) and adapted by Lee (1998))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 made by Frost (1990) and translated by Hyun (1992) were utilized after the sentences in the questionnaires were partially revised and (rendered mor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all of the subjects (n=250), but 32 of them were excluded due to insincere answers. Thus, a total of 21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and who were more career oriented we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In additio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oncern about mistakes, constant personal and parental expectation) resulted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eating disorder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dance. In conclusion, higher education level and greater career orientation induce greater stress in dance major students and cause them to have an incorrect physical image. Thus, these factors may cause higher psychological pressure leading to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Therefore, these students need to know how to correctly manage their body weight and how to prevent eating disorder.

**Keywords :** Eating Disorder, Female Dancer,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Multi-regression, Questionnaires

\*Corresponding Author : Dong-Hee K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82-10-2674-2560 email: secor@hanmail.net

Received April 27, 2016

Revised (1st May 25, 2016, 2n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 1. 서론

현대여성들에게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문화 현상은 자신의 체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해 몸과 마음을 극단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왜곡된 인식의 확산으로 젊은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과 마른 것에 대한 욕구가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 이로 인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의 다이어트와 과도한 칼로리 섭취 제한으로 섭식장애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2]. 그중 섭식장애는 일종의 신경 의학적 정신장애로서 영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3,4].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몸무게와 신체상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집착이 위험한 섭식관련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3,4]. 미국영양학회에 의하면 5백만 명 이상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으며, 섭식장애의 발병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0배 정도 높고, 주로 청소년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된다[3-5]. 특히 무용수들의 섭식장애를 간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원인으로 무용수들은 신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의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6]. 또한 무용수의 날씬한 몸매는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동작 연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완벽한 신체의 형태와 체격은 동작의 예술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성공적인 무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7].

이렇듯 무용수들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그들에게 과도한 다이어트, 금식, 구토, 설사제와 이뇨제 복용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강요함으로써 섭식장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7]. 김부용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 191명 중 57.1%가 저체중, 45.1%가 섭식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무용전공 학생들이 심각한 섭식장애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8].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성격적 요인들에는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등을 들 수 있으며[9-12], 이 가운데 섭식 장애를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완벽주의이다[9,10,13,14]. 완벽주의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에 의해 일어나는 성격 구인이며 개인이 지나치게 높은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15,16]. 완벽주의자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어떤 일이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17]. 그러나 지나친 수준의 완벽주의 추구는 우울과 불안[18], 스트레스, 공포, 분노[19], 섭식태도[20] 등의 다양한 정신 병리와 관련된 요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사회적으로 지나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은 완벽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며 체형과 움직임에 있어서 스스로 완벽해진 모습에서 나타나며[22], 신체상[23], 스트레스와 부상[24], 섭식장애[25]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승희(2009)은 발레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신체불만족, 섭식태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고[26], 김태경(2011)은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와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무용수들이 경험하는 섭식장애나 부상이 무용동작수행의 정확성과 높은 신체의 만족도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완벽주의 및 섭식장애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 무용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의 각자 주어진 상황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써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학생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를 분석하여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섭식과 관련된 체중조절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자기관리와 섭식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한 예술학교 및 무용단이 운영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표집방법은 목적표집을 이용하

였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조사에 따른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기 평가 기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배포된 총 2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반복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총 218부를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	Classification	Number	Ratio (%)
Group	high school	114	54.6
	university	104	45.4
	ballet	67	30.7
Major	korean dance	73	33.5
	modern dance	78	35.8
	≤ 2 years	50	22.9
Career	3-6 years	78	35.8
	7-9 years	53	24.3
	≥ 10 years	37	17.0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6 문항(연령, 신장, 체중, 학력, 전공별, 경력별)의 설문지와 섭식장애는 Garner(1990)[26]의 Eating Disorder Inventory-2(EDI-2)를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9]. EDI-2는 전체 23문항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drive for thinness) 7문항, 체형에 대한 불만(body dissatisfaction) 8문항, 그리고 폭식(bulimia) 8문항인 3부분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이 검사 방식은 6점 likert 척도로서 1, 8, 10, 13, 20, 23번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응답 척도를 역전하여 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의 측정은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16]의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 MPS)를 번역한 것[30]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2.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 2.3.1 섭식장애 설문지 적합도 검사

섭식장애 설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처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MO(Kaiser-Meyer-Olkin Measure)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크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아척도가 .874로 나타남으로써 질문지의 표본 적합도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로서 자아척도,  $\chi^2=1800.488(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공통요

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방식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회전방식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들의 고유값이 .40이하로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고, 각 척도별 요인의 구조와 요인별 아이겐 값, 요인 적재치, 요인별 분산율, 누적 분산율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ating disorder

Item	Factor			
	DT	BD	Bulimia	C
ED14	.869	-.206	-.252	.765
ED9	.846	-.246	-.158	.754
ED5	.843	-.155	-.374	.717
ED11	.798	-.112	-.325	.638
ED7	.768	-.101	-.368	.597
ED18	.735	-.024	-.241	.550
ED15	.723	-.080	-.496	.582
ED6	.638	-.075	-.356	.423
ED10	-.275	.834	.020	.719
ED23	-.097	.640	.018	.415
ED20	-.169	.619	-.138	.406
ED13	.016	.599	-.066	.371
ED4	.230	.076	-.832	.717
ED2	.286	.031	-.679	.462
ED3	.288	-.021	-.655	.434
ED12	.369	.115	-.596	.391
Cronbach $\alpha$	.892	.759	.777	
Eigenvalue	5.345	2.031	2.862	
Variance (%)	33.40	12.69	17.88	
Commulative variance (%)	33.40	46.09	63.97	

DT: drive for thinness, BD: body dissatisfaction, C: Community

### 2.3.2 다차원적 완벽주의 설문지 적합도 검사

다차원적 완벽주의 설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처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KM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크다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아척도가 .833으로 나타남으로써 질문지의 표본 적합도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로서 자아척도,  $\chi^2=1593.792(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방식으로 최대 우도법 회전방식은 사각회전 방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들의 고유값이 .40이하로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고 각 척도별 요인의 구조와 요인별 아이겐 값, 요인 적재치, 요인별 분산율, 누적 분산율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tem	Factor	PS	PE	CM	DA	C
FQ8		.783	.162	.107	-.193	.636
FQ6		.708	.206	.277	-.279	.508
FQ16		.675	.382	.189	-.222	.494
FQ18		.674	.175	.431	-.428	.536
FQ31		.598	.196	.156	-.243	.391
FQ17		.518	.321	.298	-.428	.383
FQ20		.249	.822	.094	-.113	.689
FQ11		.229	.728	.326	.038	.601
FQ1		.295	.682	-.008	-.015	.494
FQ26		.209	.618	.137	-.070	.387
FQ15		.248	.430	.688	-.129	.599
FQ14		.196	-.166	.672	-.360	.538
FQ25		.258	.192	.645	-.209	.430
FQ21		.216	.164	.643	-.365	.442
FQ9		.118	.009	.635	-.298	.420
FQ13		.439	.057	.559	-.302	.408
FQ32		.217	.010	.280	-.872	.770
FQ33		.312	.019	.255	-.675	.462
FQ28		.374	.134	.414	-.602	.430
Cronbach $\alpha$		.820	.789	.804	.750	
Eigenvalue		3.601	2.738	3.343	2.690	
Variance (%)		18.95	14.41	17.59	14.15	
Commulative variance (%)		18.95	33.36	50.95	65.1	

PS: personal standard, PE: parental expectation, CM: concern over mistakes, DA: doubts about action, C: Community

###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섭식장애 설문지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집단별 평균차이 검증은 독립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이어서 섭식장애 요인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요인간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학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차이

학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학력에 따른 개인의 기준은 대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5$ ), 학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총점에서도 대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5$ ).

**Table 4.**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by educational level

Factor	Group	M±SD	t	p
PS	high school	17.44±3.37	-2.490	<b>.014</b>
	university	18.46±2.71		
PE	high school	11.96±2.36	-1.416	.158
	university	12.39±2.07		
CM	high school	13.40±3.49	-1.239	.217
	university	13.99±3.49		
DA	high school	7.24±1.70	.288	.773
	university	7.17±1.84		
OP	high school	44.60±7.05	-2.263	<b>.025</b>
	university	46.63±5.98		

PS: personal standard, PE: parental expectation, CM: concern over mistakes, DA: doubts about action, OP: overall perfectionism

### 3.2 학력에 따른 섭식장애 차이

학력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학력에 따른 폭식 척도는 대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1$ ).

**Table 5.** Eating disorder by educational level

Factor	Group	M±SD	t	p
DT	high school	9.34±7.52	-1.240	.216
	university	10.59±7.31		
BD	high school	1.01±2.03	1.231	.220
	university	0.72±1.27		
Bulimia	high school	8.35±1.79	-3.561	<b>.001</b>
	university	9.23±1.83		
ED	high school	13.13±7.47	-1.241	.216
	university	14.38±7.39		

DT: drive for thinness, BD: body dissatisfaction, ED: overall eating disorder

### 3.3 전공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차이

전공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by major

Factor	Major	M±SD	<i>f</i>	<i>p</i>
PS	ballet	18.40±2.77	1.246	.290
	korean dance	17.61±3.51		
	modern dance	17.75±3.01		
PE	ballet	12.19±2.03	.126	.882
	korean dance	12.23±2.28		
	modern dance	12.05±2.40		
CM	ballet	14.41±3.42	2.516	.083
	korean dance	13.12±3.56		
	modern dance	13.54±3.44		
DA	ballet	7.13±1.72	.636	.530
	korean dance	7.09±1.91		
	modern dance	7.39±1.65		
OP	ballet	46.78±6.12	1.830	.163
	korean dance	44.72±6.88		
	modern dance	45.19±6.80		

PS: personal standard, PE: parental expectation, CM: concern over mistakes, DA: doubts about action, OP: overall perfectionism

### 3.4 전공에 따른 섭식장애 차이

전공에 따른 섭식장애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Eating disorder by major

Factor	Career	M±SD	<i>f</i>	<i>p</i>
DT	ballet	11.13±7.21	1.356	.260
	korean dance	9.17±7.76		
	modern dance	9.54±7.27		
BD	ballet	.60±1.45	1.798	.168
	korean dance	.84±1.50		
	modern dance	1.14±2.09		
Bulimia	ballet	8.82±1.72	.507	.603
	korean dance	8.87±2.00		
	modern dance	8.58±1.84		
ED	ballet	14.67±7.21	.940	.392
	korean dance	12.96±7.99		
	modern dance	13.55±7.12		

DT: drive for thinness, BD: body dissatisfaction, ED: overall eating disorder

### 3.5 경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차이

경력에 따른 완벽주의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경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요인의 차이는 개인의 기준에서 2년 이하와 3년-6년 경력의 무용수보다 7년-9년과 10년 이상 경력의 무용수가 높게 나타났다( $p<.05$ ).

**Table 8.**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by career

Factor	Career (years)	M±SD	<i>f</i>	<i>p</i>	Post-Hoc
PS	≤2	17.22±2.96	2.750	<b>0.44</b>	1, 2 < 3, 4
	3-6	17.53±3.33			
	7-9	18.58±2.91			
	≥10	18.65±2.96			
PE	≤2	11.57±2.16	1.994	.116	
	3-6	12.10±2.48			
	7-9	12.54±1.97			
	≥10	12.49±2.07			
CM	≤2	13.47±2.97	.083	.969	
	3-6	13.79±3.69			
	7-9	13.66±3.59			
	≥10	13.67±3.73			
DA	≤2	7.13±1.37	.553	.647	
	3-6	7.20±1.88			
	7-9	7.07±1.75			
	≥10	7.53±2.00			
OP	≤2	44.05±5.60	1.688	.171	
	3-6	45.22±7.44			
	7-9	46.54±6.24			
	≥10	46.70±6.55			

PS: personal standard, PE: parental expectation, CM: concern over mistakes, DA: doubts about action, OP: overall perfectionism

### 3.6 경력에 따른 섭식장애 차이

경력에 따른 섭식장애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경력에 따른 섭식장애 요인의 차이는 폭식척도에서 2년 이하의 무용수보다 7년-9년과 10년 이상 경력의 무용수가 높게 나타났다( $p<.01$ ).

**Table 9.** Eating disorder by career

Factor	Career (years)	M±SD	<i>f</i>	<i>p</i>	Post-Hoc
DT	≤2	9.02±7.05	1.289	.279	
	3-6	9.14±7.49			
	7-9	10.81±8.11			
	≥10	11.41±6.66			
BD	≤2	1.21±2.34	1.339	.263	
	3-6	0.63±1.34			
	7-9	0.80±1.67			
	≥10	1.05±1.56			
Bulimia	≤2	8.01±1.64	4.624	<b>.004</b>	1 < 2, 3, 4
	3-6	8.71±1.72			
	7-9	9.14±1.86			
	≥10	9.27±2.14			
ED	≤2	12.90±7.16	1.773	.153	
	3-6	12.67±7.41			
	7-9	14.66±7.85			
	≥10	15.56±7.07			

DT: drive for thinness, BD: body dissatisfaction, ED: overall eating disorder

### 3.7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개인의 기준( $\beta=.186, p=.010$ ), 부모의 기대( $\beta=.157, p=.019$ ), 실수에 대한 염려( $\beta=.209, p=.003$ )가 무용수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17.7%( $R^2$ )를 설명해 주었다( $F(4,217)=11.480, p=0.001$ ).

**Table 10.** Influence of variables on eating disorder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beta$	t	p
Constant	-8.158	3.454		-2.362	.019
Personal standard	.443	.170	.186	2.603	<b>.010</b>
Parental expectation	.522	.221	.157	2.359	<b>.019</b>
Concern over mistakes	.444	.147	.209	3.025	<b>.003</b>
Doubts about action	.210	.294	.050	.717	.474

$R^2 = .177, F(4,217) = 11.480, p = 0.001$

## 4. 논의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학력(대학생)과 경력(7년-9년과 10년 이상)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주의의 특징을 구분 짓는 하위요인들 중 개인의 기준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희(2009)의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발레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의 연구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26].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많을수록 무용진공자들은 보다 높은 수행능력과 완벽한 연기력을 추구하여 자신이 설정해놓은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용진공 4학년 학생들이 1,2,3학년 학생들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고 보고된 민윤미(2010)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31]. 학력과 경력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들 중 개인의 기준차이는 아마도 고등학생은 입시라는 목표, 대학생은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듯이 각자 추구하는 기대와 이상,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이 다른 환경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엄격한 평가나 실패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완벽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상담프로그램이 시행되어진다면 무용진공학생에게 있어서 완벽주의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 것으로 시사한다.

섭식장애는 학력(대학생)과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식장애의 특징을 구분 짓는 하위요인들 중 폭식요인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섭식장애는 연령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섭식장애의 총점 평균과 하위요인인 체형에 대한 불만, 마르고 싶은 욕구가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섭식장애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32]. 무용경력과 거식증 및 폭식증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노혜진(2012)의 연구결과[2]는 무용경력이 증가할수록 거식증과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경력이 오래될수록 많은 무대경험의 기회와 공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무용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신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법의 신체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비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낮은 신체만족도는 섭식장애를 발생 시킨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마도 학력과 경력에 따른 섭식장애 하위요인들 중 폭식척도의 차이는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급식의 이용과 잦은 콩쿠르 참가로 인해 학교 후 학원과 집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대학생들보다는 음식섭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사회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음식섭취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아 폭식척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섭식장애 중에 하나인 폭식증은 과식 후 체중증가 방지를 위해 나타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용진공학생들에게 섭식장애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애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무용학생 스스로가 각자의 섭식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공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무용진공자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정화(2014)와 성민경(2014)의 연구결과[33,22]

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용경력과 전공에 상관 없이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몸에 안무가 베어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여 무용수행에 있어서 작은 실수나 용납하지 않으며, 안무와 신체가 하나가 된 듯, 무대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적인 심리적 요소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전공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 사료된다. 임지형(2010)과 천소희(2015)의 연구에서는 발레가 한국무용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의 추구가 높고, 현대무용보다 타인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34,35]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레 특성상 다른 장르에 비해 토슈즈를 신는 무용수행에 있어서 동작의 정확성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므로 높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무용분야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무용수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무용의 특수성과 상황이 반영된 적절한 측정도구를 다각적인 측면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공에 따른 섭식장애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유진, 김광자(2002)의 연구에서 섭식장애와 세부 전공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 발레 전공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전공 간에 서로 다른 섭식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36]. 이러한 결과는 무용수행 중 노출된 신체 부위가 많고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레 전공학생들이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전공 학생들보다 체중에 민감한 반응들이 섭식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전공분야의 외형적 요구조건의 특수성과 예술적 표현성의 차이도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무용수들의 섭식행동과 섭식장애 패턴이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이론적 실증적 해석은 아직 불가능하다[36]. 김부용 등(2007)의 연구에서 무용 전공 여대생들의 섭식장애 위험의 발생빈도는 전공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8], 양명주(2012)의 무용전공 여대생 425명을 대상으로 세부 전공과 섭식장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37]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이는 전공의 특성 차이나 공연 문화는 다르지만, 근래에 들어 전공의 차이가 무의미해지고, 전공의 구분 없이 다

양해진 퓨전적인 공연문화에 따른 무용 이미지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 같다. 또한, 모든 무용전공생이 지각하는 왜곡된 신체상과 부정적인 방법의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의 습관화가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주며 스스로 각자의 섭식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공통으로 작용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무용수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6,27]. 본 연구의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에 개인의 기준, 부모의 기대, 실수에 대한 염려가 섭식장애의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9,20]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척도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Frost 등(1990)이 개발한 척도(F-MPS)[16]가 아니라 Hewitt & Flett(1991)가 개발한 척도(H-MPS)[38]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부분인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9]. 완벽한 체형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체중이 증가하거나 자신만의 체중 기준에 벗어난다고 인식하게 되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무용수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방해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게다가, 무용수행에서 오는 작은 실패나 실수로 인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다양한 섭식장애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수들이 지니고 있는 섭식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에서 오는 과도한 압박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주위에서 힘찬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야 하며, 섭식장애 예방교육에서 학력과 경력, 전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방법을 구성하여 올바른 체중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진다면, 향후 무용전공학생들은 완벽주의로 인한 섭식장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무용수행에 있어서 상해 및 골다공증 예방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예술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에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관련된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학력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무용학생일수록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차원적 완벽주의(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의 기준, 부모의 기대)는 무용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섭식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무용수들의 섭식장애의 범위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에서 기인한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며 점차 매우 심각한 생리적, 심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올바른 영양섭취에 대한 인식과 교육, 주위에서 무용수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무용수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개인의 신념, 감정, 행동 등의 변화를 관찰하여 설문지의 수정 및 보완을 한다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섭식장애를 가진 직업 무용수 등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통해 심리적 측면, 생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S. M. Kim, J. H. Cho, M. R. Shin, J. H. Lee, & J. H. Jung, I. W. Jung, S. Y. Kim, The Effects of Career and Major of Female Dancer on Eating Disorder and their Bone Density.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2, no. 6, pp. 1121-1129, 2013.
- [2] H. J. Roh, Effects of diet habit, exercise habit, and body composition on dietetic disorder, menstruation disorder, bone mineral density, and blood variables in female collegiate students majoring d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2.
- [3]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Nutrition intervention in the treatment of anorexia nervosa, bulimia nervosa, and eating disorders not otherwise specified(EDNO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vol. 101, pp. 810-819,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002-8223\(01\)00201-2](http://dx.doi.org/10.1016/S0002-8223(01)00201-2)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2000.
- [5] J. I. Hudson, E. Hiripi, H. G. Pope & R. C. Kessler,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s in the Nationak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 Journal of Psychiatric Neuroscience and Therapeutics*, vol. 61, no. 3, pp. 348-358, 2007.
- [6] H. J. Park, I. S. Lim, J. H. Lee,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of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their Binge Habit.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 72, no. 1, pp. 117-134, 2014.
- [7] H. Y. Kim, *A study on the weight control and eating disorder characteristics of women undergraduate of dance maj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8] B. Y. Kim, K. J. Kim, J. I. Lee, Comparison of Eating behavior according to majors of female college danc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6, no. 6, pp. 553-561, 2007.
- [9] H. Y. Kim, K. H. Park,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m, impulsivity, diet, and binge eat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4, no. 1, pp. 73-88, 2009.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09.14.1.005>
- [10] S. S. Lee, K. J. Oh,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Anorexic and Bulimic Behavio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no. 4, pp. 791-813, 2005.
- [11] A. M. Bardone-Cone, S. A. Wonderlich, R. O. Frost, C. M. Bulik, J. E. Mitchell, S. Uppala, & H.Simonich,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7, no. 3, pp. 384-405, 2007.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6.12.005>
- [12] C. G. Fairburn, Z. Cooper, & R. Shafran,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eating disorders: A "trans diagnostic" theory and treat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 41, pp. 509-528,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005-7967\(02\)00088-8](http://dx.doi.org/10.1016/S0005-7967(02)00088-8)
- [13] D. Stein, W. H. Kaye, H. Matsunage, I. Orbach, D. Har-Even, & G. Frank, C. W. McConaha, & R. Rao, Eating related concerns, mood, and personality traits in recovered bulimia nervosa subjects: *A replic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32, no. 2, pp. 225-229, 2002.  
DOI: <http://dx.doi.org/10.1002/eat.10025>
- [14] L. R. R. Lilenfeld, S. Wonderlich, L. P. Riso, R. Crosby, & J. Mitchell, Eating disorders and personality: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6, no. 3, pp. 299-320, 2006.



-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5.10.003>
- [15] G. L. Flett, P. L. Hewitt, Perfectionis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5-31, 2002.
- [16] R. O. Frost, P. A. Marten, C. Lahart, & R. Rosenblate,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4, pp. 449-468, 1990.  
DOI: <http://dx.doi.org/10.1007/BF01172967>
- [17] D. E. Hamachek,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vol. 15, no. 1, pp. 27-33, 1978.
- [18] H. J. Kim, C. N. Son,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Repetitive Thoughts in Relationship Amo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xiety,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6, no. 2, pp. 183-205, 2007.
- [19] M. H. Lee, J. H. Rhyu,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erfectionism - in Relations with Achievement Go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3, pp. 293-316, 2002.
- [20] K. J. Oh, H. G. Jung,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Anorexic and binge eat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3, no. 1, pp. 14-55, 2008.
- [21] K. R. Oh, C. Y. Oh,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Exercise Stress and Exercise Commitment of College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6, pp. 439-452, 2011.
- [22] M. K. Sung,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clination of Dance Major Students in High School for the Arts on Stress and Performance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aw Women's University, 2014.
- [23] R. G. Druss, & J. A. Silverman, Body image and perfectionism of ballerinas. *General Hospital Psychiatry*, vol. 2, pp. 115-121, 1979.
- [24] D. Krasnow, L. Mainwaring, & G. Kerr, Injury, stress, and perfectionism in young dancers and gymnasts. *Journal of Dance Medicine and Science*, vol. 3, no. 2, pp. 51-58, 1999.
- [25] E. Zoletic, & E. Durakovic-Belko, Body image distortion,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risk group of female ballet dancers and models and in control group of female students. *Psychiatria Danubina*, vol. 21, no. 3, pp. 302-309, 2009.
- [26] S. H. Choi,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hysical Dissatisfaction and Eating Behavior among Ballet Danc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09.
- [27] T. K. Kim, *The Effects of Professional Danc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Eating Disorder and Inju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11.
- [28] D. M. Garner,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0.
- [29] I. S. Lee, *Effect of dietary restraint on eat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1998.
- [30]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 [31] Y. m. Min, *The Effect of the Perfectionistic Tendencies of the College Student Majoring in Dance on Self-concept, Dance Stress and Dance Performanc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0.
- [32] S. J. Kim, J. H. Shon, H. S. Yoo, Eating Disorder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Dance According to BMI and Body Self-Image.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vol. 16, no. 3, pp. 163-172, 2008.
- [33] J. H. Kim, *The Influence of Dance Major Students' perfectionism relevant to Stress and Emo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4.
- [34] J. H. Lim, The Impacts of Perfectionism and Goal Orientations o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Regulation in Dance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4, pp. 349-359, 2010.
- [35] S. H. Chun, *The Influence of Dance Major Studen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Stress and Injury in Arts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5.
- [36] J. Yoo, K. J. Kim, Analyses of Eating Behaviors and Disorders among Female Danc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1, no. 5, pp. 501-510, 2002.
- [37] M. J. Yang, *The Effects of Dance Career and Percent Body Fat on Eating Disorder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Dan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38] P. L. Hewitt, & G. L. Flett,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3, pp. 456-470,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0.3.456>
- [39] B. J. Mcgee, P. L. Hewitt, S. B. Sherry, M. Parkin, G. L. Flet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Body Image*, vol. 2, pp. 29-49, 2005.  
DOI: <http://dx.doi.org/10.1016/j.bodyim.2005.01.002>

**홍 고 은**(Go-Eun Hong)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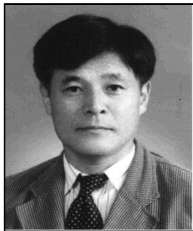
<관심분야>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

**김 동 희**(Dong-Hee Kim)

[정회원]



- 198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 1983년 5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운동처방